지역 소식통

정읍시민정원사, 공공기관 조경수 전지 작업 봉사

정읍시민정원사들이 최근 본인들의 재능으로 공공기관 조경수 전지작업을 실시했다.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시민 정원사 양성 교육을 마친 시민정원사들은 교육을 통해 익힌 지식을 활용해 재능기부 일환으로 매년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봉사에 나선 시민 정원사 30명(1기~5기)은 조경수 관리가 미흡한 읍면 보건지소 3개소(소성면·북면·옹동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소나무와 호랑가시, 측백, 회양목, 쥐똥나무 등에 대한 전지작업을 통해 조경수의 수형과 쾌적한 생육 여건을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시민정원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정읍의 모든 시민이 정원사가 되어 정원의 도시 정읍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나들목공원 물놀이장 29일 개장

고창군 도심의 물놀이장으로 사랑받고 있는 '나들목공원 물놀이장'이 오는 29일 개장한다.

개장 기간은 8월 23일까지이며, 초등학생 방학 전인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는 매주 월, 수, 금요일에 휴장한다.

방학 기간인 7월20일부터 8월 23일까지는 매주 월요일에 휴장한다. 또한 개강 기간 중 우천 시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12세 이하 초등학생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입장 인원은 오전과 오후 각 200명으로 제한되며,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에는 100% 현장 접수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현장 접수 70%, 사전 예약 30%(오전 60명, 오후 60명)으로 운영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물놀이장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자체 노사 최초 복수노조 MOU

부안군-중앙노동위, 복수노조·공정노사 솔루션 협약식

부안군은 11일 전국 지자체 노사 최초로 중앙노동위원회와 복수노조 및 공정노사 솔루션 협약을 체결했다.

부안군청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정원호 전북지방노동위원장 등 노동위원회 위원과 권익현 부안군수, 이말순 전국공무직노동조합 부안군지부장, 최성일 부안군자치단체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노사 간 분쟁 발생 시 노동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해결을 유도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프로그램으로 복수노조 대상으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부안군은 중앙노동위원회와 11일 복수노조 및 공정노사 솔루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 솔루션을 통해 노조 설립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공정대표 의무이행 등을 둘러싼 갈등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소하도록 지원하며 공정노사 솔루션으로 노사 간 집단적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과거 2023년 임금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 분쟁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해결했고 이를 밑거름 삼아 2023~2024년 임금협약을 순조롭게 체결한 바 있다.

이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군 노사와 복수노조 및 공정노사 솔루션 협약을 체결해 노사와 노동위원회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고 군 노사 또한 이번 협약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협력과 상생의 선례를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노사 간의 갈등은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 과정이야말로 조직발전과 화합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한국가요촌 달하' 〈사진=정읍시청 제공〉

한국 가요촌 '달하' 관광객 맞이 본격

정읍시, 라디오 이동 스튜디오 운영 등 편의시설 확충 계획

정읍시가 '한국가요촌 달하'에 관광객 맞이를 본격화 했다.

'한국가요촌 달하'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가요인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조성된 관광단지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기존 놀이터 부지에 음악을 테마로 한 음악 놀이터를 조성하고, 가요전시관 내에 카페를 다음 달부터 운영키로 하는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학생을 대상으로 '코앞 음악교실'을 매월 두 차례 운영하고 있다. '코앞 음악교실'은 가까이서 음악을 보고 듣는 대중음악 프로그램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JTV '장유정의 달하정원'이 달하에서 제작되고 있다. '장유정의 달하 정원'은 달하정원에서 한국 대중음악의 근원과 변천사와 당대 대중을 사로잡았던 노래가 시대에 던진 의미와 현상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3명의 초대 가수가 직접 노래를 들려줌으로써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1~2회 촬영을 마친 상태다. 오는 21일에는 3회분이 촬영될 예정으로, 촬영 영상은 7월 둘째 주부터 JTV 정규방송에 편성돼 송출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JTV 라디오에서는 가요전시관 앞에 오픈스튜디오 부스를 설치하여 월 1회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 중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2024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 선정

정읍시 다문화작은도서관

정읍시 다문화작은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국비 2,500만원을 지원받는다.

'문학기반 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도서관, 문학관, 서점 등에 작가가 상주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학 향유 프로그램 운영과 작가의 창작 여건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상주작가는 오혜원 작가가 선정됐다.

오작가는 2016년 한우리문학상 '블랙리스트'로 등단하여, '생일을 훔치는 녀석', '나나와 키키의 숨겨진 문' 등을 출간하였다. 특히, '선감학원의 비밀'은 올해 정읍시 한권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도서관에서는 상주작가와 함께 △문해력상담소 운영 △어린이를 위한 디카시 뽕망치 △어른을 위한 낭독으로 치유하기 △에세이로 나를 발행하다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로컬JOB센터, 운영위원 위촉식 개최

부안군로컬JOB센터(이하 센터, 센터장 최연곤)에서는 최근 센터 운영 및 부안군 일자리 관련 협업을 위한 운영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전북산학융합원, 부안군 주민자치협의회, 귀농귀촌협의회, 참프레, 소노벨 변산 등 주민-기업-관공서 등의 13개 기관 책임자들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다. 운영위원회 역할은 △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정책 자문 및 협업, △상용일자리 및 농어가 일자리 창출,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치 해소 정보제공, △센터 사업홍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향후 관계기관 간 소통을 통한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지역협력팀장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일자리 정책 관련 방향 설정 및 사업 수행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용노동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일자리 지원 사업'도 운영위원회 활동으로 신청자 모집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2024 컨템포러리 감성농악 '샤이닝고창' 개최

고창농악전수관이 오는 7월 6일 오후 5시 동리국악당에서 '2024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컨템포러리 감성농악-샤이닝고창'을 무대에 올린다. 기존 고창농악보존회가 주관하던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이 올해부터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으로 변경되어 진행된다.

컨템포러리 감성농악 '샤이닝고창'은 농악이 가질 수 있는 감성의 진수를 보여주는 공연이다. 고창농악의 문굿, 판굿, 당산굿, 풍장굿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비디오아트와 결합하여 새로운 형식의 농악을 보여준다. 구재연 고창농악보존회장은 '이번 상설공연은 많은 고창군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동리국악당에서 진행합니다. 고창 7대 보물 중 하나인 농악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공연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농악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만든 감성적인 공연입니다. 상설공연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 전했다. 7월 6일 개막을 시작으로 9월 14일까지 총 10회의 상설공연이 동리국악당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펼쳐진다. 8월 31일은 꽃대림축제 개막으로 인하여 공연휴무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동리국악당 내부에서 모두가 함께 만드는 영기 만들기 체험과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필름 토퍼 만들기 체험, 옛 고창농악 사진 전시회 '고창농악 시간을 만나다' 그리고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감성포토존'을 진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이 주최하고 고창농악보존회, 전북문화관광재단, 아트컴퍼니 고풍이 주관하는 이번 상설공연의 관람료는 10,000원이며 티켓 구입은 당일 현장 구매 또는 네이버에서 '샤이닝고창'을 검색하면 예매가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